

# 말씀의 샘

##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 <사무엘상 16:1~13>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것에 의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방해가 될 수 있는지 이새와 사무엘이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한번 묵상해보고 원합니다. 첫째는 이새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뜻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어떤 방해가 있을까를 이새의 모습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청하고 이새의 집을 청하여 제사를 드리고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새는 다윗만 뺀다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경우가 참 많고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니다.

**삼상 16: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었는지 몰라도, 다윗이 굳이 여기 안와도 되는데 왜 부르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틀린 생각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중요성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새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꼭 막혀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한 가지, 다윗은 양을 지키는 당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을 부르라고 한 중요한 당일, 그날 하필 당번이 이새의 집이었고 다윗이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며, 그 날이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나한테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더 피곤하다고... 그런데, 그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기도자리에 당사자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날 어마어마한 인생의 결정적인 응답을 놓치고고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히 12: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율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한끼 식사 때문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팔아버린 에서를 어리석은 바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먹고 사는 이유로 뒤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무엘의 인간적인 감정과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려 할 때, 방해가 되는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사무엘의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삼상 16: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때로는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맘 아픈 일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어느새 함께 달려와 있는 것입니다.

**2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어느 순간, 인간적인 슬픔에 빠진 사무엘에게, 그 전에 없던 감정 하나가 더 달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미스바 성회를 인도하던 사무엘이 쳐들어오는 구름때 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로, 현장에서 쩡쩡한 하늘에서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무엘이 사울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필요이상 오래가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슬며시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번 실망하면, 그동안 좋던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게 보이게 됩니다. 작은 거 하나에 실망하고 1차로 감정에 넘어가면, 2차 3차로 계속 좋지 않은 다른 감정들이 달려와서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절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에 그에게 가장 먼저 올라온 감정은 혐기, 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고 악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으니 시기심,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발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4**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텐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아도 지친 감정에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서 순식간에 열등감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한번 들어올 때 댐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 감정을 다스려야 2차 감정의 공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잘라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으로부터 일어섰을 때 그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16. 5. 29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6. 5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16:11~14 / 창세기 21:14~19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을 경험하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실기 있는  
DURANNO CHURCH  
두란노 교회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